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목 차**

**최근 동향**..... 2

- 카자흐스탄, 생물무기조약 비준
- 우크라이나, 핵 테러 처벌을 위해 형법 개정
- 대만, 이란 및 북한에 대한 무역제한 강화

**인사 변경**..... 4

- 전 국가안보 및 국방의회 관료, 우크라이나의 국가수출통제서비스의 영구 수장으로 임명

**불법 밀매**..... 4

- 러시아의 방사능 사건 요약
- NIS제국의 방사능 사건 요약
- 러시아당국이 프리모레(Primorye)의 무기밀매조직 일당을 기소
- 라트비아 당국이 MiG-29기 부품의 불법수출을 조사, 불법수출자들을 체포

**국제지원 프로그램** ..... 10

- 우크라이나-몰도바 국경에 방사능 탐지 장비 설치
- 뉴질랜드와 미국, 우크라이나 핵 및 방사능 안전 목적의 자금 제공
- 글로벌파트너십 의무의 일환으로서 우크라이나 국경보안강화에 자금 지원
- 유럽연합(EU), 중앙아시아의 국경 관리에 지속적인 지원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타지키스탄 방문
- 트빌리시(Tbilisi)에 방사학연구소 개소

**금수 및 제재** ..... 13

- 일본은 향후 위반에 대한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Mitutoyo 소송건에 대해 벌금을 언도
- 일본, 유엔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이란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제재

**국제 동향**..... 16

- 파키스탄 항구, 미국 화물검색구상에 참여

**컨퍼런스와 워크숍** ..... 17

- 비슈케크와 알마티에서 개최된 수출통제부문 업계-정부 관계
- 미정부, 타지키스탄의 긴급대응과 국경통제 개선 지원

## 최근 동향

### 카자흐스탄, 생물무기조약 비준

2007년 5월 7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Nursultan Nazarbayev는 “생물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제조, 비축 금지와 생물무기 파괴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 No. 245-III에 서명했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2005년 11월 16일 Mazhilis(카자흐스탄 하원)에 의해 조인되고, 2007년 4월 17일 상원에서 조인되었던 카자흐스탄의 생물 및 독소 무기 조약(BTWC)에 대한 비준이 완료되었다.[1,2,3] BTWC를 비준하거나 동의한 156개국에 카자흐스탄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4]

소련 시절에 카자흐스탄 지역은 널리 생물전(BW) 작용제의 연구, 개발, 제조 및 시험에 이용되었다. 소련 BW 프로그램에 연루된 4개의 주요 설비는 다음과 같다. 아랄해에 위치한 Vozrozhdeniye 섬 야외 시험지, Stepnogorsk에 있는 과학실험과 제조기지 (연 300톤의 탄저균 생산 가능), Gvardeyskiy에 있는 수의학 기구인 과학연구 농업기구 (이전에는 카자흐스탄 과학 연구 농업 기구였으나 지금은 생물안전 문제에 대한 과학 연구 기구가 되었음), Almaty에 위치한 반 전염병 과학연구 기구 (현재 격리와 동물원성 감염증을 위한 Masgut Aikimbayev 카자흐스탄 과학 센터).

소련이 붕괴된 후 카자흐스탄에 있는 모든 공격적 및 방어적 생물 무기 프로그램은 종료되었고, 정부는 소련의 BW 인프라를 무장해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적 재정 지원과 필수 전문기술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국제 지원 프로그램이 예전 BW 설비의 활동 방향을 전환시키고, 군사 전문기술 보유 인력의 대이동을 막도록 많은 지원을 제공하였다. [5]

1995년 10월, 카자흐스탄의 자원부와 미국 국방부는 Nunn-Lugar 위협 경감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의 WMD 인프라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호 협정에 서명했다. 2004년 12월, 카자흐스탄과 미국은 상호 협력을 확장하여 생물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물테러의 위협에 맞서는 협정의 수정안에 서명했다. 이 수정안에 따라 미국은 BW 관련 전문지식이 협력적 연구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카자흐스탄 설비에서 생물안전과 생물보안을 강화하여 위험한 병원균과 균주를 보안하고, 보안된 중앙 저장소에 있는 위험한 병원균을 격리하고, BW 관련 장비와 인프라를 제거하고, 카자흐스탄이 생물 작용제를 탐지하는 능력을 지원하고, 가능한 생물 테러 공격을 방해하거나 이에 대응한다. [5,6]

Sources: [1] “Kazakhstan ratifitsiroval konventsiiu o zapreshchenii bakteriologicheskogo i toksinnogo oruzhiya”

(Kazakhstan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bacteriological and toxin weapons),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May 7, 2007, in Gazeta.kz, <<http://www.gazeta.kz>>. [2] “Mazhilis odobril prisoyedineniye respubliki k Konventsii o zapreshchenii biologicheskogo oruzhiya” (The Mazhilis approved the Republic’s accession to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November 16, 2005, in Gazeta.kz, <<http://www.gazeta.kz>>. [3] “RK Parliament Ratified Convention on Prohibition of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rage of Bacteriological Weapons,”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April 17, 2007, in Gazeta.kz, <<http://eng.gazeta.kz>>. [4]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U.S. 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Fact Sheet, May 9, 2007, <<http://www.state.gov/t/isn/bw/fs/84758.htm>>. [5] “Biological Overview,” Kazakhstan’s Country Profile, Nuclear Threat Initiative website,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Kazakhstan/Biological/index.html](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Kazakhstan/Biological/index.html)>. [6] “United States and Kazakhstan Expand Proliferation Prevention Agreement to Cover Biological Weapons and Bioterrorism,” NIS Export Control Observer, December 2004-January 2005, pp. 10-11,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 우크라이나, 핵 테러 처벌을 위해 형법 개정

2007년 5월 24일, Verkhovna Rada(우크라이나 의회)는 핵 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 조약을 비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우크라이나의 형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채택했다. 이 법률안은 방사능 물질의 밀수와 불법거래에 대한 형량을 증가를 규정하고, 핵폭발 장비 또는 방사능 분광 장비의 불법제조를 유죄로 한다.[1,2] 법률안에 따르면, 후자의 위반은 국가 최저 월임금액의 300배에서 700배의 벌금 또는 2년 내지 5년간의 징역(또는 보호감호)으로 처벌될 것이다. [1] [편집자 주 : 국가 “최저임금”이란 일부 신생독립국(NIS) 국가들에서 세금, 보조금, 관세, 벌금 및 기타 납부액과 벌금액을 계산하고, 노동법규의 임금, 보상금 및 기타 지급액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에 의해서 정해진다.] 법률안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Viktor Yushchenko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편집자의 주 : 핵 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은 비확산과 반테러 분야의 기존 국제기관을 보완하는 다자간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98년 UN 총회에 러시아가 제출한 기관 초안에 기반한 것으로 모스크바의 구상에 대해서 UN이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다. 이 조약은 2005년 4월 13일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5년 9월 14일부터 서명이 시작되었다. 이 조약은 회원국들이 핵테러 관련한 위반을 유죄로 규정하는 적절한 법체제를 개발하고, 수사 하며,

위반자를 체포, 기소 또는 송환 할 것을 촉구한다. 시행이 되면, 이 조약은 이 분야 국제 협력의 법적 근거도 또한 제공할 것이다. 이 조약은 22 개 회원국이 비준하면 시행될 것이다. 2007 년 4 월 10 일 까지 100 개국이 서명했고 17 개국이 비준했다. [3,4] 우크라이나는 2005 년 9 월에 이 조약을 비준했다. [5]

Sources: [1] "Za kontrabandu radioaktivnykh materialov vvvedena ugolovnyaya otvetstvennost'" (Criminal responsibility has been introduced for the smuggling of radioactive materials), May 24, 2007, Novosti-Ukraina News Agency, <<http://www.newsukraine.com.ua>>. [2] "Rada vvvela ugolovnyuyu otvetstvennost za kontrabandu radioaktivnykh materialov'" (Rada introduce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smuggling of radioactive materials), Ukrainski Novini, May 24, 2007, in Delo.ua, <<http://delo.ua/news>>. [3] Steven C. Welsh, "Nuclear Terrorism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May 17, 2005,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website, <<http://www.cdi.org/news/law/ntc.cfm>>. [4] UN Security Council Counter-Terrorism Committee, "International Law and Terrorism," UN website, <<http://www.un.org/sc/ctc/law.shtml>>. [5] "Ukraina prisoyedinilas k Mezhdunarodnoy konventsii o borbe s aktami yadernogo terrorizma'" (Ukraine acceded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September 14, 2005, LIGA Biznesinform, <<http://www.liga.net>>.

### 파키스탄, 핵테러 저지를 위한 글로벌 구상에 참여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부서 설립

2007년 6월 9일,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 Tasnim Aslam은 파키스탄이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핵테러 저지 글로벌 구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구상의 새로운 협력자로서, 파키스탄 관리들은 2007년 6월 11~12일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회의에 초대되었다. [1]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파키스탄의 파키스탄이 핵과 방사능 테러의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로 "법적, 규정적, 및 행정적 기반"에 있어서의 최근의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글로벌 구상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의 핵 관리 당국은 IAEA와 협력하여 핵 시설의 안보를 강화하고, 개선된 절도 탐지 절차를 정립하고, 보다 효과적인 긴급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핵 안보 계획을 공식화 했다. [1]

편집자의 주 :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6 년 7 월 15 일 제안한 핵테러 저지 글로벌 구상이란, 테러리스트가 핵무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하나이다. 이 구상에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핵시설의 보안뿐만 아니라, 핵물질과 방사능 물질의 정산, 통제 및 물리적 방호를 개선하는 것, 이러한 물질들과 관련된 불법 거래 또는 기타 불법 행위 탐지하고 억지하는 것,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이들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핵 테러 행위의 결과에 대응하고 이를 경감하는 것, 핵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는 것, 핵물질을 취급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법집행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 테러리스트와 테러 행위를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기소와 확실한 처벌을 보장하도록 양국의 법체계를 강화하는 것" 을 계획했다. [2]

파키스탄은 또한 외무부(MFA) 아래에 새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부서를 설립했다. [3,4] 2007년 4월 30일에 설립된 이 새로운 부서는 2004년 11월 4일에 통과된 파키스탄의 수출통제 법에 따른 허가를 발급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핵, 생물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3,4] 전략물자 수출통제 부서에는 MFA 직원 외에도 파키스탄 군대의 전략계획 부서, 산자부, 국제청 중앙 위원회 및 수출통제 준수에 관련된 기타 관청들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다. [3,4] [편집자 주 : 전략계획 부서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국가 명령 당국의 사무국으로서 기능한다.] [5] 외무부 대변인인 Aslam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부서의 설립을 "비확산에 대한 파키스탄의 강한 의지와 국가적 국제적 수출통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단에 대한 계속된 표명" 이라고 칭했다. [6]

편집자의 주 : 2004 년 6 월,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파키스탄은 WMD 관련 품목에 대한 더 포괄적인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수출 규정의 초안을 마련했다. 2005 년 10 월, 파키스탄은 핵물질에 대해서 NSG 의 통제리스트를, 생화학 무기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호주 그룹의 통제리스트를 채택했다. [3] 이 두 개의 통제리스트에 등재된 물품을 파키스탄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이 2005 년에 일어난 이 변화는 A.Q. Khan 이 국제 핵밀매 네트워크를 운용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부문에 있는 그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2004 년에 밝혀진 후 MFA 에 의해서 기안되었다. Khan 은 과거의 수출통제 법률에 있는 허점을 이용할 수 있었고, 핵무기 관련 상품을 리비아, 북한, 이란 및 기타 국가들에게 공급했다. [7]

Sources: [1] "Pakistan to Join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 Indian News Agency PTI via BBC Worldwide Monitoring, June 9, 2007;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U.S.-Russia Joint Fact Sheet on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U.S. Department of State Media Note, July 15, 2006, <<http://www.state.gov/r/pa/prs/ps/2006/69016.htm>>. [3] M Rafiq Goraya, "Strategic Export Control Division Set Up: Foreign

Office," Business Recorder, May 1, 2007;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4] "Pakistan Tightens Nuclear Export Controls," Agence France Presse, April 30, 2007;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5] "Pakistan Special Weapons Agencies: National Command Authority,"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website, <<http://www.fas.org/nuke/guide/pakistan/agency/nca.htm>>. [6] "'Strategic Export Control Division' Set Up at Pakistan Foreign Ministry," BBC Monitoring International Reports, April 30, 2007;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7] Shi-chin Lin, "The AQ Khan Revelations and Subsequent Changes to Pakistani Export Controls," Nuclear Threat Initiative website, October 2004, <[http://www.nti.org/e\\_research/e3\\_54a.html](http://www.nti.org/e_research/e3_54a.html)>.

## 인사 변경

### 전 국가안보 및 국방의회 관료, 우크라이나의 국가수출통제서비스의 영구 수장으로 임명

우크라이나 내각은 국가안보 및 국방의회(NSDC) 부의원장 Yuri Petrochenko를 선출하여 우크라이나 국가수출통제서비스(SSEC)의 수장에 2007년 3월 1일자로 임명했다. [1] 2007년 3월 1일 명령 320호에 따라 Petrochenko가 2006년 6월 Mikhail Morozov의 갑작스런 사임 이후 SSEC의 임시 수장을 맡아온 Alexander Grishutkin을 대신하게 되었다. [2]

1946년 키예프에서 태어난 그는 키예프국가경제기관(현 키예프국립대학)의 1968년 졸업생이다. [3] 그는 NSDC에 "주요 전문가"로 임명되기 전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소비에트 내무부에서 근무했다. [4,5] Petrochenko는 15년의 재직기간 동안 NSDC에서의 지위를 높여나갔다. Leonid Kuchma 대통령은 그를 NSDC 부의원장으로 임명하였고 Victor Yushenko 대통령 때에도 NSDC 부의원장에 재임되었다. [1]

Petrochenko는 부패 방지를 위한 기간관 테스크포스와 법 집행기관 내 제도개혁 권유 테스크포스, 또한 Yushenko-Putin(우크라이나-러시아) 양자 위원회에서 일하였다. [편집자 주: 2005년 5월 8일, 양자간 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국 대통령인 Vladimir Putin 과 Viktor Yushenko가 위원장을 맡아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가간 위원회가 형성되었다.] [6,7,8,9] Petrochenko의 SSEC 임명에 따라 Victor Yushenko 대통령은 명령 209호에서 2007년 3월 15일자로 그의 기존 NSDC 임무를 공식 해지하였다. [10]

Sources: [1] "Eksportnyy kontrol doverili novomu cheloveku" (Export control has been entrusted to a new person), MIGnews.com.ua, March 2, 2007, <<http://www.mignews.com.ua>>. [2] "Morozov uvolen s dolzhnosti glavy Gossluzhby eksportnogo

kontrolya Ukrainy" (Morozov fired from the position of head of Ukraine's State Service of Export Control), Interfax-Ukraine, June, 30, 2006;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3] "Naznacheniya nedeli" (Appointments of the week), Biznes, March 5, 2007;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4] "Pravitelstvo Ukrainy naznachilo novogo glavu Gossluzhby eksportnogo kontrolya" (The Government of Ukraine has appointed a new head of the State Service of Export Control), Interfax-Ukraine, March 5, 2007;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5] "Naznacheniya" (Appointments), Vlast i Politika, June 25, 2004;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6] "Ukraina usilit borbu s korruptsiyey" (Ukraine will strengthen battle against corruption), From-Ua, December 29,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7] "Poroshenko podkinul rabotenu Prezident" (The president gave job to Poroshenko), GlavRed, May 24,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8] "Prezident izmenil sostav komissii Yushenko-Putin" (The president has changed the make-up of the Yushenko-Putin commission), proUA.com, October 23, 2006;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9] Rossiysko-ukrainskaya mezhgosudarstvennaya komissiya (Russian-Ukrainian Interstate Commission), December 25, 2006,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http://www.mid.ru/nsrsng.nsf/6bc38aceada6e44b432569e700419ef5/bef818bb6218c2fc325724f00423d28?OpenDocument>>. [10] "Ukaz Prezidenta Ukrainy № 209/2007" (Edict of the President of Ukraine No. 209/2007), March 15, 2007, President of Ukraine website, <[http://www.president.gov.ua/ru/documents/p\\_5876.html](http://www.president.gov.ua/ru/documents/p_5876.html)>.

## 불법 밀매

### 러시아의 방사능 사건 요약

다음은 2007년 5-6월, 러시아에서 방사능 소스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개요이다. 보도된 사건들의 대부분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밝혀내지는 못하였지만 버려진 방사능 소스들에 대한 지속되는 문제점에 대해 강조 지적하였다. 해당 사건들은 최근 사건부터 차례로 기재되었다.

2007년 6월 5일 방사선 주의기호와 시리얼 번호가 표시된 지름 4.5cm, 높이 4cm의 실린더 형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 남동쪽 스타브로폴 크레이 지방 Grachey구(rayon)의 Kizilov농장 근처 숲에서 발견되었다. 근교에 위치한 Staromaryevskoye 마을 주민이 이 물체를 발견,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비상대책부(MChS)의 스타브로폴 크레이 지역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컨테이너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8.4마이크로시버트( $\mu\text{Sv}$ )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스로부터 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는 배경 농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컨테이너는 비상대책부 관료들에 의해 Izobilnyy 타운으로 옮겨져 화학-방사선 연구소에 특수 보관되었다. 이 컨테이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1,2]

2007년 5월 16일, 모스크바 Sheremetevo-1 공항에 설치된 Yantar 방사능 측정 시스템이 우편물 선적 검사 도중 방사능을 감지했다. 보안 서비스에서 당국에 연락을 취했고 모스크바 주(州, Oblast) MChS 관료들과 모스크바 Radon 시설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방사능이 감지된 수화물을 발견하였다. [편집자 주 : Radon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하는 러시아 국영 기관 네트워크이다.] 수화물 주변에서 측정된 방사선은 배경 농도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를 위해 해당 물품을 수거하였던 Radon 전문가들은 이 수화물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공중 위생에 위험은 없을 것으로 결론지었다.[3]

2007년 5월 15일, 러시아 MChS 정보부는 Smolensk 주(州)의 Yartsevo의 한 목화 공장의 관리 빌딩에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컨테이너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컨테이너를 수거, 특별 보관 시설로 옮긴 MChS 관료들은 이 의문의 물질이 플루토늄-239이라고 잠정 결론(preliminary conclusion)지었다.[4] 그러나 이어진 조사에서 이 물질은 플루토늄을 포함하지 않은 전기 엘리미네이터(eliminator)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이 장치의 방사선이 배경 농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 위생과 환경에 위협이 되지 않았음을 확증하였다.[5]

2007년 5월 7일, 방사선 물품-지름 1.5cm, 높이 15cm의 봉인된 파이프-이 Samara 주의 Togliatti에 위치한 Stroyindustriya 합작 회사 부지에서 발견되었다. 이 물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시간당 9-10마이크로시버트( $\mu\text{Sv}$ )에(자연적 배경 농도는 시간당 0.1 $\mu\text{Sv}$ 임) 달했다. 지역 위생 및 전염병센터의 공무원들이 이 회사 부지에 판매용으로 보관되고 있던 고철(scarp metal)에 대한 방사선 통제 수행 도중 이 물품을 흙 더미 속에서 발견하였다. 이어진 조사에서 이들은 또 다른 방사선 물품-시간당 1.55 $\mu\text{Sv}$ 의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는 불특정 금속 컨테이너-을 발견하였다. 당국은 이 방사선 물품들의 출처나 주인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 물품들은 센터의 건물(premises)에 납으로 된 특별 컨테이너에 임시 보관되었다. 5월 14일 Samara주 Radon의 특별 통합 부처 공무원들이 검사와 적절한 처리를 위해 이 물품을 수거하였다.[6,7,8]

Sources: [1] Yelena Kornilova, "V Stavropolskom kraye nayden radioaktivnyy konteyner" (A radioactive container was found in the StavropolKray), Tatar-inform News Agency, June 6, 2007, <<http://tatar-inform.ru>>.[2] "Na Stavropolye obnaruzhen konteyner s radioaktivnymi elementami" (A container with radioactive elements was discovered in the Stavropol region),

June 6, 2007, <<http://www.regnum.ru>>. [3] "V aeroportu 'Sheremetyevo-1' obnaruzhena radioaktivnaya posylka" (A radioactive parcel was discovered at the Sheremetyevo-1 airport), RIA Novosti, May 17, 2007, <<http://www.rian.ru>>. [4] "V Smolenskoj oblasti obnaruzhen beskhoznyy konteyner s plutoniem" (An orphan container with plutonium was found in the Smolensk Oblast), RIA Novosti, May 15, 2007, <<http://www.rian.ru>>. [5] "Radioaktivnyy istochnik, obnaruzhenny v Smolenskoj oblasti, ne opasen" (A radioactive source discovered in the Smolensk Oblast is not dangerous), RIA Novosti, May 16, 2007, <<http://www.rian.ru>>.[6] "Radioaktivnyye predmety zakhoronyat v Samare" (Radioactive items to be buried in Samara), May 15, 2007, United Volga information portal, <<http://www.u-volga.ru>>. [7] "V Tolyatti obnaruzheny predmety s povyshennym radiatsionnym fonom" (Highly radioactive items were discovered in Togliatti), Regions.ru News Agency, May 18, 2007, <<http://www.regions.ru>>. [8] "Tolyatti: predmety s povyshennym radiatsionnym fonom" (Togliatti: highly radioactive items), Ekologiya Severa (North's Ecology) information portal, undated, <<http://www.ecosever.ru>>.

## NIS 국가들의 방사능 사건 요약

### 그루지야

2007년 6월 15일,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 국경에 위치한 Red Bridge 통관항의 방사선 감시기가 입국 중인 벤츠 화물트럭으로부터 정상 수치보다 높은 방사선을 감지했다.[1,2,3] 이어지는 조사 도중 그루지야 국경 경찰들은 스테인리스 고철을 실은 이 트럭에서 금속 파이프에 든 플루토늄-베릴륨을 발견하였다.[1,2] 국경 경찰은 그루지야 내무부(MIA)의 특별 작전 센터와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부(MEPNR)에 이 사실을 알렸다.[1,3] MIA와 MEPNR은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였고, 그들은 이 파이프 주변의 방사선 수치가 초당 300 neutrons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됨을 확인하였다.[1,2,4,5] MIA와 MEPNR은 이 화물 트럭을 아제르바이잔으로 돌려 보내고, 아제르바이잔 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공동 결정하였다.[2,3]

2007년 6월 18일, 그루지야의 국경경찰청(NBP)은 이 사건의 자세한 전말에 대해 발표하였다. NBP의 발표에 따르면, 이 화물 트럭의 운전자는 그루지야 시민이었고 고철의 선적과 관련된 문서도 적절히 갖춰져 있었다. 이 트럭은 다양한 종류의 고철을 싣고 있었고 유정(oil well) 굴착에 사용된 것으로 설명된 방사선 방출 파이프도 이 중 하나였다.[2,3]

편집자의 주 : 종종 "중성자 캐논(neutron cannons)"으로도 불리는 플루토늄-베릴륨(Pu-Be) 중성자원은 플루토늄-239 와 플루토늄-238 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 두 동위원소는 모두 베릴륨과 작용하여 중성자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알파 입자를 방사하기 때문이다. 유정 굴착에 쓰이는 Pu-Be 중성자원은 주로

핵 무기에 유용하지 않은 플루토늄-238 을 사용한다. 그러나 플루토늄-238 몇 그램 만으로도 강력한 “dirty bomb” 의 연료가 될 수 있다. 유정 굴착 외 다른 곳에 쓰이는 중성자 발생 Pu-Be 중성자원에는 적은 량의 플루토늄-239 가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혼합물 속 플루토늄의 주 동위원소가 적은 량의 다른 플루토늄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핵 무기 제조에 쓰인다. 핵 무기에는 일반적으로 수 킬로그램의 무기 등급 플루토늄이 필요하다.

MEPNR의 원자력 및 방사능 안전 서비스 수장 Soso Kakushadze는 로이터 통신에 그루지야가 이 방사능 소스의 저장 및 중화에 쓰이는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화물 트럭을 아제르바이잔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4,6] 그러나 NBP 청장 Badri Bitsadze는 Tbilisi에 기반을 둔 Imedi 텔레비전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상반된 해명을 하였다. Bitsadze는 트럭에는 어떠한 방사능 물질도 없었으며 방사선 감지기가 트럭 내부의 방사선 배경농도 상승에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방사능 물질의 불법 수입이 있었다면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조사도 이루어 졌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7] MIA는 트럭의 주인이나 해당 고철의 의도된 수하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4,5] 아제르바이잔의 비상사태부(Ministry of Emergencies)와 접촉을 해 보았으나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추가 코멘트도 받을 수 없었다.[4] 아제르바이잔의 온라인 뉴스 기관인 Day.Az에 따르면 이 방사능 파이프가 사고에 의해 고철 선적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한다. 아제르바이잔 국경 경비가 이를 차단하지 못한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쪽의 국경에는 방사선 통제 장비가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편집자의 주 : 2005 년 12 월 21 일, 미국 에너지부의 국가 핵 안보부(NNSA)와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 두 국가의 다국경 통과지(multiple border crossings)와 공항, 항구에 방사선 탐지기와 통합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의는 NNSA 의 2 차 방어선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이 장비가 설치되면 이 케이스에서 보듯, 방사능 물질이 탐지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4,5,8]

#### 카자흐스탄

2007년 6월의 카자흐스탄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 위원회(KNB)는 카자흐스탄의 남쪽 주(oblust)의 행정 수도인 쉘켄트(Shymkent)에서 세슘-137이 든 컨테이너를 판매하려 한 한 남자를 체포하였다. 오랫동안 쉘켄트에서 거주해온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30세 남성은 동 방사능 물질을 150만 tenge (미화 12,400불)에 구매자로 위장한 KNB 요원에게 판매를 시도하다 체포되었다. KNB는 이 밀매상에 대한 경고를 받은 후 2007년 5월 말 합정 수사에 착수하였다. 매스컴에 따르면, 이어진 조사에서 범인은 공범인 한 알마티 거주민이 그 컨테이너를 쉘켄트로 들여왔다고 자백했다. 이 공범은 6월 16일, 그의 몫인 125만 tenge (미화 10,330불)을 받으려 쉘켄트에 들어왔을 때 체포되었다.[1,2] 혐의자들은 “방사능 물질의 불법 취급”으로 카자흐스탄 형사법 2장 247조에 따라 2년에서 6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9,10,11]

카자흐스탄 신문인 Liter는 2007년 6월 7일, 동 사건 보도 기사에서 KNB가 쉘켄트에서 또 다른 불명확한 방사능 물질 판매 시도를 저지하였으나 KNB측에서 더 이상의 정보 제공은 거절하였다고 밝혔다.[10] 그러나 KNB는 6월 28일, 카자흐스탄 남부에서 일련의 방사능 물질 판매 시도가 있었고 이 중 2건은 쉘켄트에서, 또 다른 두 건은 Kyzylorda 지방에서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첫 번째 쉘켄트 사건은 6월5일에 발생한 반면 Liter가 언급한 두 번째 사건은 6월 7일 발생하였다고 한다. 세슘-137이 든 금속 컨테이너를 판매하려던 두 명의 쉘켄트 주민이 추가로 체포되었고 KNB가 이 중 한 혐의자의 집을 조사하는 중 또 다른 세슘-137 컨테이너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는 범인이 컨테이너를 습득한 장소가 6월 17일 KNB가 세슘-137이 든 컨테이너를 100만 tenge(미화 8,265불)에 판매 시도하려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카자흐스탄인을 체포하였던 Kyzylorda 지방임을 확인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또한 2개의 컨테이너가 추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6월 21일 KNB는 Kyzylorda 주(oblust)에서는 18개의 방사능 물질이 든 컨테이너의 판매를 시도하던 한 남자를 체포하였다.[12] Observer는 이 사건들을 추후에도 계속 관찰할 예정이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비상사태부(Ministry of Emergency Situations)는 동부 카자흐스탄 주의 Izanovka 마을 인근 숲의 버려진 우물에서 어린아이들이 10개의 유리 앰플(glass ampoules)을 발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길이 10cm, 지름 2cm의 이 앰플들에는 세슘-133을 담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편집자의 주 : 세슘-133은 자연 발생하는 동위 원소로 방사성이 없다.] 당국은 공공 위생에는 어떤 위험도 없었다고 설명하였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해당 앰플들을 수거해갔다.[13]

2007년 6월 29일, 북부 카자흐스탄 주의 행정 수도인

Petropavlovsk에서 방사능 소스가 발견되었다. 방사능캡슐 하나가 거리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반에 고정된 지름 50cm의 금속 파이프 하단에 위치해 있었다. 비상사태 대책부에 따르면 방사능 사인이 부착된 이 길이가 15cm, 지름 10cm의 캡슐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자연 배경 농도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주(oblust) 경찰은 특별 위원회가 이 소스의 처리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까지 방사능 소스 발견 현장을 보호하는 일을 맡았다.[14] 이 사건에 관련한 업데이트는 발간일 까지 오픈 소스에서 찾을 수 없었다.

### 리투아니아

2007년 4월 말, 리투아니아와 벨로루시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4월 22일, 이 두 국가의 국경에서 방사성 화물 밀매 시도가 의심되는 벨로루시 국적자 2명이 유치되었다. 이는 벨로루시 내무부 산하의 조직 범죄 및 부패와의 투쟁 국장(main directorate)과 리투아니아 형사 경찰국(Bureau of Criminal Police)의 공동 활동과 두 국가의 국경 서비스 측 지원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혐의자의 차를 조사하던 중 집행 담당 공무원이 러시아어로 “우라늄-238, 1991.”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금속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두 혐의자가 리투아니아에 검거되었고 컨테이너는 검사를 위하여 리투아니아 방사성 안전 센터로 보내어졌다.[15,16,17] 그러나 한 주 후 매스컴은 검사 결과를 인용하여 해당 컨테이너가 비어있었으며 위험의 소지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입수할 수 있는 근거들로서는 이 사건이 두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의 실수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밀수업자들이 리투아니아와 벨로루시 국경의 경계상태를 시험하려고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18]

### 타지키스탄

2007년 5월 8일, 러시아 Regnum 뉴스 기관은 8명의 남자가 플루토늄-베릴륨이 든 컨테이너 3개와 세슘-137이 든 컨테이너 하나를 판매하려 시도한 혐의로 타지키스탄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총장실을 대변하는 Sobijon Isobayev에 따르면 이들 모두는 2006년 말,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식별되지 않은 아랍 국가 국적자인 두 남자에게 미화 400,000불을 받고 방사성 물질의 판매하려 시도하던 중 구류되었다. 이 두 구매 용의자는 현재 수배 리스트에 올라 있다.[19]

Isobayev에 따르면 혐의자 중 2명은 전 타지키스탄 국방부와 내무부 소속 이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이와 비슷한 범죄(플루토늄 판매 시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지키스탄 원자력 및 방사성 안전 기관에 따르면 이 플루토늄-베릴륨 소스와 세슘-137은 모두

몇몇 과학 연구 기관에서 사용되었으나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타지키스탄 형사법에 193조에 의거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을 시 혐의자들은 3년에서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19]

*편집자의 주 : 이와 유사한 사건은 타지키스탄의 법 집행 관리원이 50 세의 우즈베키스탄 Ferghana 거주민과 2 명의 공범자들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든 캡슐을 압류하였던 2004 년 5 월 15 일에도 있었다. 이 캡슐은 플루토늄 동위원소 혼합이 포함된 러시아산 플루토늄-베릴륨 중성자 방사성 소스라고 주장되었다.[20]*

Sources: [1] “Predotvrashchena popytka vvoza plutoniya iz Azerbaidzhana vGruziyu” (An attempt to bring in plutonium from Azerbaijan to Georgia is thwarted), Day.Az, June 18, 2007, <<http://www.day.az>>. [2] “Pogranichniki utochnili detali popytki vvoza v Gruziyu radioaktivnogo loma” (Border guards clarified details of an attempt to smuggle radioactive scrap metal to Georgia), Information-Analytical Web Portal Gruziya Online, June 20, 2007, <<http://www.apsny.ge>>. [3] “Border Police Detects ‘Radioactive Scrap Metal’ at Azeri Border,” Civil Georgia, UNA-Georgia Online Magazine, June 20,2007, <<http://www.civil.ge/eng>>. [4] “Radioaktivnyy gruz smog peresech azerbaydzhanskuyu granitsu iz-za otsutstviya neobkhdimogo oborudovaniya u pogranichnikov” (Radioactive cargo could cross the Azerbaijani border because the border guards did not have the necessary equipment), Day.Az, June 20, 2007, <<http://www.day.az>>. [5] “Sluchay s perevozkoy plutoniya cherez azerbaydzhanskuyu granitsu obyasnayaetsya otsutstviem spetsoborudovaniya” (The case with the transportation of plutonium across the Azerbaijani border can be explained by the absence of special equipment), Novosti-Gruziya News Agency, June 20, 2007, <<http://www.newsgeorgia.ru>>. [6] Nidal al-Mughrabi, “Georgia Finds Plutonium on Azeri Border, Sends Back,” Reuters, June 20, 2007, <<http://www.reuters.com>>. [7] Vsevolod Yaguzhinskiy, “Gruziya oprovergayet informatsiyu o vvoze radioaktivnykh veshchestv” (Georgia denies information on import of radioactive substances), Novyy Region News Agency, June 21, 2007, <<http://www.nr2.ru>>. [8] “U.S. Works with Georgia and Azerbaijan to Stop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 Smuggling,” December 21, 2005, U.S. Department of Energy’s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website, <[http://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5/PR\\_2005-12-21\\_NA-05-35.pdf](http://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5/PR_2005-12-21_NA-05-35.pdf)>. [9] “V Shymkente mestnyy zhitel pytalsya prodats radioaktivnyy material tseziy-137, dostavlenny iz Almaty” (In Shymkent, a local resident attempted to sell radioactive cesium-137 brought from Almaty),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June 18, 2007, in Gazeta.kz, <<http://www.gazeta.kz>>. [10] Yuriy Elisseyev, “Radi aktivnosti...” (For activity...), Liter online edition, June 20, 2007, <<http://www.liter.kz>>. [11] Irina Galushko, “Prodams tseziy. Dorogo” (Cesium for sale; Expensive), Ekspress-K online edition, No. 109 (16257), June 20, 2007, <<http://www.express-k.kz>>. [12] “Presecheny nezakonnyye operatsii sradioaktivnymi veshchestvami” (Illegal operations with radioactive substances have been prevented), KNB press service, June 28, 2007, <[http://www.knb.kz/page.php?page\\_id=43&id=2639](http://www.knb.kz/page.php?page_id=43&id=2639)>. [13] “V VKO v zabroshennom kolodtse deti obnaruzhili 10 steklyannykh ampul sradioaktivnym veshchestvom” (Children found 10 glass ampoules with radioactive substance in an abandoned well in the East Kazakhstan Oblast),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June 5, 2007, in Gazeta.kz, <http://www.gazeta.kz>. [14] Olga Kovalenko, “V Kazakhstane obnaruzhenakapsula s urovnem radiatsii v 25 raz vyshe normy” (A capsule with radiation 25 times exceeding the normal level was discovered in Kazakhstan), RIANovosti, July 1, 2007, <http://www.rian.ru>. [15] “Belorusy pytalys pereveziticherez litovskuyu granitsu uran” (Belarus residents tried to smuggle uranium through Lithuania border), Km.Ru, April 26, 2007, <http://www.km.ru>. [16] “V Litve zaderzhany dvoje belorusov za popytku kontrabandy urana” (Two Belarus residents detained in Lithuania for an attempt to uranium smuggling), AFN, April 25, 2007, <http://www.afn.by>. [17] “Podozrevayemyye v kontrabande urana byli zaderzhany na belorusskolitovskoygranitse” (Suspected in uranium smuggling were detained on Belarus-Lithuania border), Telegraph, April 25, 2007, <http://www.telegraf.by>. [18] “Uran okazalsya ‘lipovym’” (Uranium was proved to be fake), Novoye Russkoye Slovo online edition, April 30, 2007, <http://www.nrs.ru>. [19] “V Tadjikistane predotvrashchena popytkakontrabandy plutoniya” (An attempt of plutonium smuggling prevented in Tajikistan), Regnum News Agency, May 8, 2007, <http://www.regnum.ru>. [20] “Nuclear Smuggler Arrested in Tajikistan,” NIS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4, p.6.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 러시아당국이 프리모레(Primorye)의 무기밀매조직 일당을 기소

2007년 6월 27일 러시아 신문인 코메르산카바로프스크(KommersantKhabarovsk)에는 프리모르스키 크레이(Primorskiy Kray)의 포그라니치니(Pogranichnyy) 지방법원에서 니콜라이 골리셰프(Nikolay Golyshhev)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는 러시아 연방세관의 극동지역 대표부에 속한 그로데코보(Grodekovo) 세관의 통관 및 통제 부서의 조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Su-27 및 MiG-23 전투기의 부품과 “토파즈” 미사일 유도장치를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밀매조직은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불법 이전되는 군수물자를 차단하기 위한 FSB sting 작전 중 적발되었다.[1,2]

2002년 3월 FSB는 니콜라이 나고르니크(Nikolay Nagornykh) 준위로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첩보에 따르면 극동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제 11 항공 및 방공단 소속 제 22 전투기 연대의 쟌트랄나야 우글로바야(Tsentralnaya-Uglovaya) 비행장에 소속된 이골 루킨(Igor Lukin) 대위와 알렉산드르 아르투유코프(Aleksandr Artyukhov) 소령이 Su-27 전투기의 사양 및 용법에 관한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1,2,3] 루킨과 아르투유코프는 사용설명서에서 공개 및 비밀 기술 정보를 빼내어 중국측 의뢰인에게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2000년 후반에서 2001년 사이에 SU-27 가스터빈 엔진 1기, SU-27 조절펌프 1기, 그리고 미사일 유도장치 2기를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2,3]

2002년 5월, 루킨은 “바냐(Vanya)”로 알려진 중국 비밀기관의 대표자의 의뢰를 받아 라프산 구세이노프(Ravshan Guseynov) 중위, 안드레이 로예(Andrey Royek) 대위, 그리고 민간인인 알렉산드르 벨로샤핀(Aleksandr Beloshapkin) 그리고 빅토르 포포프(Viktor Popov)와 함께 Su-27 부품을 밀매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한다.[2] 이들은 운행 중인 Su-27에서 작동 중인 GTDE-117-1 가스터빈 엔진을 떼어내고 대신 포포프가 소유하던 고장난 엔진으로 교체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FSB가 당시 sting 작전을 수행하면서 포포프의 창고를 이미 수색하여 엔진을 발견한 바 있으나, 해당 엔진을 압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1,2,3]

벨로샤핀과 포포프는 “바냐”와의 교신과 부품 운반을 책임지고 있었다.[2] 이 둘은 니콜라이 골리셰프라는 세관원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 세관원은 중국행 열차에 밀매품을 숨겨주기로 했다고 한다.[1,3,4] 2002년 6월 16일 FSB와 세관원들은 해당 열차를 수색하여 국방 관련 문서의 복사본을 발견하였고 열차 행로를 추적한 결과 밀매대상인 GTDE-117-1 가스터빈 엔진 뿐만 아니라 대전차 유도미사일 3기와 SK-224-05 비행기 엔진시동장치 부품 1기를 발견하였다.[4] 벨로샤핀과 포포프는 2002년 6월 19일 체포되었다.[2]

2003년 11월 러시아 일간지 Trud는 FSB가 수사를 완료하고 7명에 대해 기소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2] 2004년 12월 법원은 알렉산드르 벨로샤핀에 대해 반역(러시아 형법 제275조 상의 “반역”), 밀매(188조), 군수품 불법 운반(제222조)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11년의 징역형을 부과하였다. 이고르 루킨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직위에서 해제되었다.[1,5] 아르투유코프와 구세이노프는 8년의 조건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직위해제되었다.[1,4] 빅토르 포포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2002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 이와 별도로 골리셰프는 2007년 6월에 직무를 남용하여 무기를 밀수한 혐의(형법 제188-3조 b항)로 유죄판결을 받고 6년의 징역형과 30만 루블(미화 11,740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

러시아 지역 일간지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은 FSB 요원들이 “바냐 일당”을 계속 추적 조사하기로 결정하여 2명을 추가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톡 시에 거주하는 파브르 노직(Pavel Nosik)과 블라디보스톡에서 멀지 않은 로마노프카(Romanovka)라는 마을에 사는 빅토르

스말(Viktor Smal) 소령이 그 수사대상이었는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노직은 중국 비밀기관 요원으로부터 Su-27 전투기 본체 또는 부품을 밀매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한다. 바냐와 연루되어 있던 스말이란 자는 Su-27 전투기 부품 목록이 담긴 랩탑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2004년 12월 반역죄(275조)로 체포되어 기소조치되었다. 노직은 13년, 스말은 15년 6개월의 유배형을 받았다.[4]

*편집자의 주: 어떤 전문가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중국 비밀기관에 관한 FSB의 언론 발표가 일관성이 없고 혐의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1997년에 이미 Su-27Sk 전투기와 관련 부품 및 설계도가 중국으로 공식적으로 이전되고 중국에서의 생산이 허용되는 등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기술 협력이 광범위하게 진전되어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Kommersant는 모스크바에 소재한 전략 및 기술 분석 센터의 센터장인 Ruslan Pukhov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사법적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은 확신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내지 밀매일 뿐이지 간첩활동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한다.[5]*

2006년 2월 11일 대통령령 90호에 의해 개정된 러시아연방 국가기밀법 제 17조와 제 18조에 따르면 군사기술의 사용, 설계 및 유지에 관한 정보와 군사기술의 기술적, 기술적 사양 및 특성에 관한 정보는 국가 기밀로 간주된다.[6, 7]

Sources: [1] Aleksey Chernyshev, "Tamozhennik sel za kontrabandu zapchastey k voyennym samoletam" (A customs official is jailed for the contraband of military aircraft parts), Kommersant-Khabarovsk online edition, No. 111, June 28, 2006, <http://www.kommersant.ru/region/khabarovsk>. [2] Vladimir Yanchenkov, "Istrebitel prodavali chastyami" (The fighter was sold by parts), Trud online edition, December 28, 2004, <http://www.trud.ru>. [3] Anton Skok, "Shpionskiy klubok" (Spy tangle), Yezhednevnyye novosti, December 24, 2004;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4] Vasiliy Avchenko, "Istrebitel dlya Vani" (A fighter for Vanya), Vladivostok, December 16, 2004;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5] Alek Akhundov and Aleksey Chernyshev, "Krazha skuplennogo" (Theft of what was sold), Kommersant online edition, No. 237 (3076), December 20, 2004. <http://www.kommersant.ru>. [6] "Ukaz Prezidenta Rossiyskoy Federatsii №90" (Edict No. 90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ident of Russia website, February 11, 2006, <http://document.kremlin.ru/doc.asp?ID=32374&PSC=1&PT=3&Page=1>. [7] "Zakon o gosudarstvennoy taine" (Law on State Secret), Federal Security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www.fsb.ru/under/secret.html>.

## 라트비아 당국이 MiG-29기 부품의 불법수출을 조사, 불법수출자들을 체포

2007년 6월 27일 라트비아 언론은 라트비아 보안경찰이

세르게이 라트니코프(Sergey Ratnikov), 블라디미르 쿠드라체프(Vladimir Kudryavtsev), 빅토르 타라첸코(Viktor Tarashchenko) 등 3인을 MiG-29 Fulcrum 부품을 방글라데시에서 최종사용할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라트비아로 밀매하려 시도한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1,2] 이들은 의료장비 회사인 Flaters, LLC를 이용, 레이저 조준장치, 목표 확인장비, 미사일 유도장비 등 군수물자 밀매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3]

2007년 5월 10일 라트비아 보안경찰은 Latvian Konkors 항공사의 대표이자 Flaters社의 소유자인 세르게이 라트니코프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하였다.[2] 발틱(Baltic) 뉴스社에 따르면 2006년 핀란드 당국이 라트비아로부터 수송된 Flaters社의 화물을 수색하여 MiG-29 부품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Flaters社는 세관 제출 서류에서 해당 화물에 민간 물품이 들어있다고 허위기재하였다고 한다.[3] 2007년 5월 17일 라트비아 당국은 리가(Riga)에 소재한 Flaters社의 창고를 급습하여 핀란드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MiG-29 부품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Flaters社의 창고에서 발견한 부품은 방글라데시 공군에게 이송될 예정이었다고 한다.[1,2,3]

Flaters社의 정관에 따르면 Flaters社는 의료 및 광학 정밀장비를 제조하며 기계, 제조장비, 그리고 항공기 판매의 증개에 종사하고 있다.[3] 보안경찰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Flaters社는 밀수출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제한되거나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물자를 라트비아 국경을 거쳐 이전" (제190.1조의 3항)하는 경우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2,4] 이 회사는 라트비아 국방부로부터 민수용 및 군용 기술의 수출, 수입, 이전을 수행하도록 허가를 얻은 바 있는 업체이며 러시아로부터 라트비아로 Mi-2 헬기를 수입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1,4]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Flaters社가 외교부의 전략물자통제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이다.[4] Konkors 항공사의 대변인은 Flaters의 관계자들이 서류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확인발표하였다.[2]

당초 2005년 4월 5일까지 유효하였던 Flaters社의 국방부 허가는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2007년 6월 12일자로 효력정지되었다.[1] 만일 유죄로 판명날 경우 라트니코프와 그의 거래상대방에게는 재산 압류와 함께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예정이다.[2]

Sources: [1] Andrey Tatarchuk, "'Tochka opory' podvela" (Failed 'Fulcrum'), Biznes & Baltiya online edition, June 28, 2007, <http://www.bb.lv>. [2] Oksana Antonenko, "Millionera arestovali iz-za MiGov" (Millionaire was arrested because of MiGs),

Telegraph, June 29, 2007;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3] “Odnim iz arestovannykh v svyazi s, kontrabandoy cherez Latviyu zapchastey dlya voyennoy aviatsii yavlyayetsya., millioner Ratnikov-gazeta” (One of the arrested in connection with, contraband through Latvia of military aviation components is former., millionaire Ratnikov-newspaper says), Baltic News Service, June 27, 2007;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ru>>. [4] Snezhana Bartul and Oksana Ryleyeva, “Kto zakazal Sergeya Ratnikova” (Who put out a contract on Sergey Ratnikov), Biznes & Baltiya online edition, July 9, 2007. <<http://www.bb.lv>>.

## 국제지원 프로그램

### 우크라이나-몰도바 국경에 방사능 탐지 장비 설치

2007년 5월 21일, 미 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NNSA)과 우크라이나 국경수비서비스의 관리들은 우크라이나-몰도바 국경인 Kuchurgan 국경 검문소에 방사능 탐지 특수 장비 설치 공식 행사에 참여하였다.[1] NNSA가 제공한 이 장비는 핵과 방사능 물질의 불법 이동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었고 해당 검문소에서 2007년 5월 1일부터 실지 사용중이었다.[2] 이 행사에서 양국 대표자들-주 우크라이나 미 대사인 William Taylor와 NNSA 국제물질보호및협력과 (International Material Protection and Cooperation) 의 행정관보 David Huizenga, 우크라이나 국경수비서비스 의장인 Mykola Lytvyn중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한 핵 및 방사능 물질 밀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지속적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였다.[1,2] 이 행사에서 Kuchurgan 국경 직원이 국경 통제 과정에서 이 장비의 실시간 사용을 시연하기도 하였다.[2]

2005년 4월 22일 당시 NNSA 행정관 Linton Brooks와 Mykola Lytvyn중장이 사인한 양자 협정에 따라 NNSA의 2차 방어선 프로그램은 교육 지원, 테크니컬 워크샵 개최, 우크라이나의 주요 국경지역, 공항, 항만에 방사능 탐지 장비 설치 및 유지등의 방법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기관을 지원하고 있다.[3]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NNSA는 우크라이나-몰도바 국경 5곳의 검문소-Mamalyga, Mogilev-Podolskiy, Yampol, Platonovo, Kuchurgan-에 특수 장비를 배치하였다. 또한 NNSA는 향후 Borispol, Odessa 공항과 Ilyichevsk, Odessa 항만을 포함하여 25 곳에 추가적으로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1,2]

Sources: [1] “NNSA Works with Ukrainian Border Agency to Thwart Nuclear Smuggling,” NNSA Press Release, May 21, 2007, <[http://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7/PR\\_2007-05-22\\_NA-07-19.htm](http://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7/PR_2007-05-22_NA-07-19.htm)>. [2] Elena Mazur, “Amerikanskaya tekhnika na sluzhbe Ukrainy” (U.S.-made equipment to serve Ukraine), GLAS media group, May 21, 2007, <<http://www.glasweb.com>>. [3] “United States to Install Radiation Detection Equipment on Ukrainian Borders; Ukraine-NATO Commission Adopts 2005,

Target Plan,”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y 2005, pp. 9-10,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 뉴질랜드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핵 및 방사능 안전 목적의 자금 제공

2007년 3월 9일, 미 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은 2차 방어선 프로그램(Second Line of Defense, SDL)의 일환으로서 핵 안보 협력에 관한 뉴질랜드와의 협약에 서명했음을 발표했다. 이 협약 하에서, 뉴질랜드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의 국경 경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US\$ 460,000 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세관 및 국경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계에서 대량살상무기 또는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의 밀거래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급 방사능 탐지 장비의 제공도 포함된다. 뉴질랜드 군축 및 무기통제 장관이자 국방부 장관, 상무부 장관, 통상장관, 태평양 섬 업무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Phill Goff씨는 이러한 원조 노력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였다[1,2,3].

편집자의 주: 1998년 수립된 2차 방어선 프로그램(SDL)은 당초에 주로 철도, 공항, 항구 및 기타 러시아의 주 출입 지점을 통해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의 불법 밀거래를 방지하는 것이 주안이었다. 2002년 2차 방어선 프로그램(SDL)은 그 활동 범위가 다른 주요 경우 국가로 확대되었다. 2차 방어선 프로그램(SDL)을 통해 휴대용 전신오염감지기(portal monitor) 및 방사능 탐지 장비가 설치되고 유지되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비의 사용교육이 제공된다. 또한, 2차 방어선 프로그램(SDL)은 미 국무부의 원조에 의해 제공되는 전신오염감지기 및 X-선 분석기에 대한 정비 책임을 지게 된다. 2차방어선 프로그램(SDL)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www.nti.org/e\\_research/cnwm/interdicting/second.asp](http://www.nti.org/e_research/cnwm/interdicting/second.asp)>를 참고 바람.

미국과 뉴질랜드의 협약을 통해 2002년 캐나다 카나나스키에서 개최된 G8 정상 회담시 설립된 대량 파괴 무기 및 물질의 확산에 반대하는 G8 글로벌 파트너십 하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다. 발단은 당초 러시아의 특정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기타 신생 독립국에서의 비확산, 군축, 반테러 및 핵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다[4].

뉴질랜드는 WMD 확산과 반테러 활동 등의 국제적인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G8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으로서, 러시아 Shchuchye 지역의 화학무기 파괴 시설에 대한 자금을 기부하였다. 2006년 뉴질랜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러시아 Zheleznogorsk 소재의 최신 화학 반응기를 폐쇄하는 사업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였다.[2]

Sources: [1] "New Zealand to Support NNSA and Ukraine Effort to Fight Nuclear Terrorism," May 9, 2007,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NNSA) website, <http://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7/PR\_2007-05-09\_NA-07-18.htm>. [2] "Goff Marks NZ Contribution to WMD Project," New Zealand Government website, May 10, 2007, <http://www.beehive.govt.nz/ViewDocument.aspx?DocumentID=29254>.[3] "Biography: Hon Phil Goff," New Zealand Government website, <http://www.beehive.govt.nz/Biography.aspx?MinisterID=38>. [4] "Statement by G8 Leaders. The G8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Canada's G8 website, <http://www.g8.gc.ca/2002Kananaskis/kananaskis/globpart-en.asp>.

**캐나다 글로벌파트너십 의무의 일환으로서 우크라이나 국경보안강화에 자금 지원**

캐나다 외무장관 피터 맥케이(Peter Mackay)는 정부가 5백만 캐나다 달러(US\$4,418,820)를 우크라이나의 공항의 보안을 강화하고 기타 국경 교차지역의 핵테러를 막기 위해 제공할 것이라고 2007년 5월 7일 발표했다.[1,2] 국경 보안 자금 지원 이니셔티브의 발표는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 Asreniy Yatsenyuk의 캐나다 방문 중에 그리고 독일 Heiligendamm에서의 G-8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2년 캐나다 카나스키스(Kananaskis)에서 수립된 대량파괴 물질 및 무기 확산 반대 G8의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캐나다가 약속했던 10억 캐나다 달러 자금 약속의 부분적 이행이다.[1,3,5]

자금은 국경 관리 공무원의 훈련에 지원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국경 검사지에 방사성 탐지 장비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이다.[3] 우크라이나 국경보안 사업은 미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NNAS :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의 2차 방어선(Second Line of Defense) 프로그램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 [편집자 주 : 앞서 나온 설명자료 중 2차 방어선(SLD) 프로그램 설명 참고] 우크라이나 국경보안 사업은 또한, 뉴질랜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것"이다. [3,4]

Sources: [1] "Canada to Help Ukraine Beef Up Airport and Border Security,"Agence France Presse, May 7, 2007, via Strengthening the Global Partnership project website,<http://www.sgppproject.org/Personal%20Use%20Only/070507canadaukraine.htm>. [2] "Canada Announced \$5 Million to Upgrade,Border and Airport Security in Ukraine to Prevent Nuclear Terrorism," Maple Leaf News, Embassy of Canada to Ukraine website, May 7, 2007,<http://www.international.gc.ca/canada

europa/ukraine/maple/maple\_leaf\_80-en.htm>. [3] "Canada to Support NNSA Effort to Fight Nuclear Terrorism,"U.S. Department of Energy Press Release, May 9, 2007, <http://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7/PR\_2007-05-09\_NA-07-17.htm>. [4] "New Zealand to Contribute to Combating Nuclear Smuggling,"New Zealand Government Press Release, Strengthening the Global Partnership project website, March 26, 2007,<http://www.sgppproject.org/Personal%20Use%20Only/070326nz.htm>. [5] "Global Partnership Program," Canad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website, <http://geo.international.gc.ca/cip-pic/library/globalpartnershipen.asp>.

**유럽연합(EU), 중앙아시아의 국경 관리에 지속적인 지원**

2007년 5월 25일, EU의 중앙아시아 국경관리프로그램(European Border Management Program in Central Asia(BOMCA))의 최고 고문인, 하디 롤링(Hardy Roehling)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의 브리핑에서 유럽 연합은 2008~2009년에 걸쳐 중앙아시아에서의 국경 관리 및 마약밀매를 막기 위하여 천이백만 유로(US\$1,600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2]

BOMCA는 공식적으로 2003년에 시작되었고 2009년에 완료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4단계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5단계는 현재 이행 중에 있다. 최근 진행된 2개 단계의 예산은 각각 6백만 유로(US\$8백만)이다. 6단계는 2007년 1월에 시작되어 2008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7단계는 2008년 1월~2009년 12월에 걸쳐 이행될 것이다.[3,4]

BOMCA와, 이에 관련된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마약관련프로그램(CADAP)의 매니저인 Amir Elchibekov에 따르면, EU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국경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검문소에서의 통제 강화, 관련 인프라의 재건, 국경 기관에 화물 검사 도구 제공, 폭발물과 마약 밀매 예방, 지역 국경 가드의 훈련.[1,3]

BOMCA는 수혜국들에게 통합된 국경 관리와 마약 통제의 도입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고, EU의 독립국가연합기술지원(TACIS)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UN개발프로그램의(UNDP) s) 지역 사무소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총 3천 8백만 유로(5천만 US달러)의 예산을 가진 BOMCA/CADAP 공동 프로그램은 EU 최대 규모의 중앙아시아 기술지원 이니셔티브이다.[3,4]

Sources: [1] "V 2008-2009 godakh ES nameren vydelit \$12 mln. naukrepneniye granits i presecheniye narkotrafika v Tsentralno-

Aziatskom regione” (In 2008-2009, the EU intends to provide \$12 million for improving border control and prevention of drugs traffic in the Central Asian region).Kazakhstan Today News Agency, May 25, 2007, in Gazeta.kz,<<http://www.gazeta.kz>>. [2] Olga Semenova, “Finansiruyetsya Evropeyskoy komissiyey” (With financial support of the European Commission), Kazakhstanskaya pravda online edition, <<http://www.kazpravda.kz>>. [3] “Boosting Border Management & Drug Control in Central Asia,” European Commission website, <[http://ec.europa.eu/europeaid/projects/tacis/case\\_centralasia\\_border\\_en.htm](http://ec.europa.eu/europeaid/projects/tacis/case_centralasia_border_en.htm)>. [4] “Border Management,” December 4, 2006, The European Commission’s Delegation to Kazakh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http://www.delkaz.cec.eu.int/joomla/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51&Itemid=39](http://www.delkaz.cec.eu.int/joomla/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51&Itemid=39)>.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타지키스탄 방문

2007년 5월 24-26일, IAEA 사무차장이자 IAEA 기술협력부 수장인 Ana Maria Cetto가 同 기구와 타지키스탄 간 기술협력프로그램 하에 시작된 프로그램의 이행을 평가하고, 타지키스탄의 원자력 및 방사능 안전 현황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당국을 방문하였다.[1] Cetto는 부총리 Khayrinisso Mavlonova와 외무부장관 Khamrokhon Zarifi, 보건부장관 Ranokhon Abdurakhmonova, 농업 및 환경보호부 장관 Abdurakhmon Kadyrov, 과학아카데미 학장 Mamadsho Ilolov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과 만남을 가졌다. 또한 Cetto는 방문기간 중 액체 및 고체 방사성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타지키스탄의 국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하였다. 이 처리장은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Dushanbe)에서 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faizabad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1,2]

IAEA와 그 회원국간의 기술 지원은 단기(4-6년) 참고자료의 틀로서 역할하며 국가 개발 필요성과 원자력 과학 및 기술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춘 국가보고서(CPFs)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3] 타지키스탄과 IAEA는 2005년 9월 26일, CPF 서류에 서명하였다. 同 문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협력 가능 부문들을 식별해 내었다 : 규정 기반(regulatory infrastructure), 우라늄 폐석 부지(tailings sites) 및 폐기물 관리, 보건 부문, 농업, 지식 관리 부분의 추가 개발.[4] 현재 IAEA와 타지키스탄의 기술 협력은 다음 8가지의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 국가 핵 프로그램 관련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평화적 적용에 대하여 여러 측면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센터(INIS)의 설립.
- 위장병학(Gastroenterology) 기관의 기술적 능력 향상으로 핵의학(nuclear medicine) 서비스

를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나은 환자 간호와 치료를 도모.

- Republican Clinical Center of Oncology에서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 서비스 업그레이드.
- 타지키스탄 동물 및 사람 인구에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 양, 염소의 브루셀라증(brucellosis)에 대한 통제 및 진단 향상.
- 토지황폐화(주로 토양 침식) 측정을 위한 도구 및 능력 개발과 타지키스탄에서의 토양 보호 조치의 이행.
- 우라늄 광산 채굴 및 분쇄에 연관된 잔류물의 관리나, 이 잔여물이 지역 주민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판단.
- 공공 방사선 보호 향상을 위해 타지키스탄 남부 지방의 우라늄 폐석 부지에 방사선 감시 시스템 설치.
- 적용 가능한 국내 및 국제 기준에 맞춘 정확한 측정과 표준화된 도량법을 통해 방사선 보호 상태(status)를 향상 시키기 위해 타지키스탄에 방사선 보호 측정 서비스 설립.[5]

편집자의 주 : 타지키스탄은 2001년 9월 10일 IAEA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3년 7월 7일, 타지키스탄 정부와 IAEA는 세이프가드 및 그 추가 의정서의 적용 협정에 합의하였다. 이 두 문서는 2004년 12월 14일 발효되었다.[6]

INIS는 1970년 설립되었다. 이는 IAEA의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식 교환 촉진”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INIS의 임무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보의 보고를 생산, IAEA 회원국에 양질의 원자력 정보 서비스를 제공, 정보 지식 공유 문화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이다. INIS 원자력 공학에서부터 비확산, 농업과 건강부문에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룬 세계 과학 기술 문헌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7]

Sources: [1] Nargis Khamrabayeva, “Pervyy zamestitel glavyy MAGATE pribyla v Dushanbe” (IAEA first deputy head arrived at Dushanbe), Asia-Plus News Agency (Tajikistan), May 24, 2007, <<http://www.asiaplus.tj>>.[2] “Ministr inostrannykh del Respubliki Tajikistan Khamrokhon Zarifi prinyal delegatsiyu Mezhdunarodnogo Agentstva po Atomnoy Energii (MAGAT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Khamrokhon Zarifi received an IAEA deleg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website, May 25, 2007, <<http://www.mid.tj/index.php?node=news&dt=1180047600&id=343>>. [3] “Country Programme Framework (CPF),” IAEA Technical Cooperation Department website, <<http://www-tc.iaea.org/tcweb/strategy/cpfs/default.asp>>. [4] “Tajikistan signs CPF,” September 27, 2005, IAEA Technical Cooperation

Department website, <http://www-tc.iaea.org/tcweb/regionalsites/europe/news/newsstory/default.asp?newsid=77>. [5] "Country Information: Information records on Tajikistan," IAEA Technical Cooperation Department website, <http://wwwtc.iaea.org/tcweb/regionalsites/europe/country/default.asp?cid=TAD>. [6] "Tajikistan, Republic of", IAEA Country Factsheet, IAEA website, <http://ola.iaea.org/factSheets/CountryDetails.asp?country=TJ>. [7] "About INIS," IAEA website, <http://www.iaea.org/inisnkm/inis/aboutinis/overview.htm>.

**트빌리시(Tbilisi)에 방사학연구소 개소**

2007년 6월 중순, 그루지야 법무부 국립과학수사국의 Levan Samkharauli는 방사학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로 개소한 연구소에 취임하였다. 그 연구소는 방사능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감마분광계와 같은 현대식 장비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지원하에 갖추고 있다. IAEA는 또한 그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루지야 전문가들을 위해 Bucharest, Minsk, Kiev에 특별 훈련체계를 확립하였다.[1,2]

국립과학수사국 관원들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식품, 알콜 음료, 음료, 약품, 향수, 유(油) 제품, 건축재, 담배 류, 가전 제품, 폐 금속 뿐만 아니라 공기, 토양, 지표수, 침적물 샘플 등 여러가지 물질 및 물품들에 대해 방사학적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연구소는 전문가들이 실내 및 야외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카프카스 지방을 통털어 이 분야의 유일한 연구소이며, 인근 국가를 비롯하여 국가적인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1,2,3] 보고에 따르면, 방사선이 존재할 수 있는 소비재를 조사하기 위해 누구든지 연구소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3]

독립 이후, 그루지야 정부는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거래를 차단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자국이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다량의 버려진 방사성원에 대처해 왔다. 이 연구소는 국가의 법집행 기관들이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불법이전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버려진 방사성원을 발견해 내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방사선 위기상황 발생시 환경오염 및 일반대중예의 방사선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 능력과 반응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Sources: [1] Melsida Akopyan, "V Tbilisi otkryta unikalnaya laboratoriya radiatsionnoy ekspertizy" (A unique radiological laboratory has been opened in Tbilisi), Novosti-Gruziya News Agency, June 20, 2007, <http://www.newsgeorgia.ru>. [2] Melsida Akopyan, "V Tbilisi budet otkryta unikalnaya laboratoriya" (A unique laboratory will be opened in Tbilisi), Novosti-Gruziya News Agency, May 28, 2007, <http://www.newsgeorgia.ru>. [3] Melsida Akopyan, "V Natsionalnom byuro sudebnoy ekspertizy Minyusta Gruzii sozdano otdeleniye radioekologicheskoy ekspertizy" (A

section of radioecology evaluation has been established at the National Bureau of Forensic Expertis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of Georgia), Novosti-Gruziya News Agency, January 12, 2007, <http://www.newsgeorgia.ru>.

**금수 및 제재**

**일본은 향후 위반에 대한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Mitutoyo 소송건에 대해 벌금을 언도**

Mitutoyo 소송건, 형기, 벌금, 제재 부과후 종결

2007년 6월 25일, 동경지방법원은 일본의 하이테크 측정장비 제조사인 Mitutoyo Corporation의 4명의 前 중역들에 대한 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날 일본 정부는 동사에 대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총 3년간의 행정 제재를 발표하였다.

형사소송에서 4명의 피고인들은 2001년 10월 및 11월 말레이시아로 2대의 삼차원정밀측정기계를 불법수출하여 최초로 고발되었다. 이 기계들은 파키스탄 과학자 A.Q.Khan의 동업자들이 구매하였으며, 그 중 한 대는 2004년 IAEA에 의해 리비아에서 발견되었다. Mitutoyo社 중역들은 또한 2005년 7월 싱가포르 내 자회사인 Mitutoyo-Asia Pacific社에 측정장비를 3대 더 추가로 불법수출하여 고발되었다.[1,2] 기소된 자들은 2006년 12월 유죄를 시인하였다.

Mitutoyo社에 대한 조사 기간중, 일본 당국은 동사가 지난 10년간 이상 하이테크 측정장비를 불법 이전해 왔음을 발견했다. Mitutoyo社는 일본의 수출통제를 회피해 왔으며, 1990년대 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든 후, 측정장비의 관독결과를 조작하여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 성능 이하로 정밀도가 떨어지게 보이도록 하였다.

6월 25일 법원 판결에서, 前 회장인 Norio Takatsuji는 3년의 형량을, 前 사장인 Kazusaku Tezuka는 2년 8월의 형량을 받았으며, 두 명 모두 5년간 선고가 보류되었다. 前 관리 사업부장 Hideyo Chikugo는 2년 4월의 형량을, 前 이사회 멤버인 Tetsuo Kimura는 2년의 형량을 받았으며, 두 명 모두 4년간 선고가 보류되었다. [편집자 주: 선고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만일 상기한 4명이 유예기간 중 추가 범죄를 지을 경우, 언제든지 투옥하게 된다.] 또한 판결에서 Mitutoyo社에게는 4천5백만엔 (US\$363,000) 벌금이 부과되었다.[2]

동경 검찰은 원래 4명에 대해 수년간의 선고를 요청했으며 - Takatsuji에 대해 4년, Tezuka에 대해 3년 6월, Chikugo와 Kimura에 대해 3년 - 선고 유예는

원했던 바가 아니었다. 또한 검찰은 Mitutoyo社에 대해 4천9백7십만엔(US\$407,40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다.[1]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이전된 물자가 민간용도임과 핵프로그램을 지원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용을 호소하였다.[3,4] 검찰은 측정장비 중한 대가 최종적으로는 현재 폐기된 리비아의 핵프로그램 관련 시설에 사용된 사실이 불법 이전임을 입증한다고 박박하였다. 기소에 따르면, Mitutoyo의 행동은 사실 중대한 핵확산 사건이었다.[5]

최종 판결에서, 수석판사인 Masahiro Hiraki는 피고들의 행동이 일본의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으며 일본의 국제적 신용도에 위해를 가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수석판사는 Mitutoyo社의 중역들이 그들이 수출하는 장비가 핵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형량은 보장된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수석판사는 그 4명이 자신들의 행위를 누우치고 있는 사실을 믿는다고 언급하며 유예선고의 정당성을 언급하였다. 수석판사는 피고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기로 선택한 사실을 언급했다.[2]

2007년 6월 26일, 일본 경산성은 Mitutoyo社에 대해 향후 3년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였다. 일본 정부는 Mitutoyo社가 2007년 7월 3일부터 6개월 동안 어떤 물품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6개월 후에는 컴퓨터 수치제어 방식의 3차원측정기기의 수출금지가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다. 전체 수출금지 기간 중, 처음 6개월이 지난 후 경산성은 측정기기를 일부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할 것이다.[6] 비록 승인 고객들의 명단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및 EU 등 대부분의 주요 산업국 내 Mitutoyo社의 많은 고객들은 수출금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조 및 이전이 일본의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질 경우, 수출금지는 Mitutoyo社의 외국 영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에 위치한 Mitutoyo社의 생산시설은, 대개 일본 당국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일본산 장비 또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계속해서 장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 수출통제 위반시 벌칙 강화 움직임**

Mitutoyo 사건은 일본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분명한 수출통제 위반사례들 중 하나일 뿐이다. Yamaha Motor Corporation 및 Seishin Enterprise에 대해 형사 소송이 진행되었다 - 후자는 2년의 수출금지조치를 받음. WMD 확산과 관련하여 고조되고 있는 세계적인 우려와 연관된 이들 소송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일본산 물품 및 기술이 WMD 관련 프로그램으로 추가로 불법

이전 또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었다.

2006년 4월, 경산성은 ‘안보수출통제 분야 산업구조위원회 내 분과위원회(Industrial Structure Council’s Subcommittee on Security Export Control)’ 아래에 수출통제 및 비확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설립하였다. 이 실무그룹의 목적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FEFT)’을 강화, 개정하여, 민감 기술의 불법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본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그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수출통제 위반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안에 대해 정부에 자문
- (모든 국가가 WMD 관련 물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를 일본 정부가 가장 잘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리스트 작성
- 테러리스트가 WMD를 이용하는 것을 가장 잘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자문
- WMD 및 관련 물자의 환적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 마련
- 재래식무기에 대한 확대된 “캐치올” 통제를 포함하여 바세나르체제의 최근 변경사항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더욱 효과적인 자국의 수출통제 규정들을 개발.[5]

제10차 회의 이후, 실무그룹은 불법수출에 대한 벌칙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경산성에 제출하였다.[6] 2007년 6월 13일, 이 권고안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 위반에 대한 벌칙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9] 일본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 후 효력을 갖는 개정법에 따르면, 수출통제 위반에 따른 벌금의 수준이 10배로 증가하고 최대 형량은 2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현행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 하에서는, 통제 물품 및 기술을 허가 없이 수출하여 유죄가 확정된 단체는 최대 2백만엔(US\$16,200)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언론에 따르면, 개정법 하에서는 이전되는 물품 건별로 벌금의 최대액은 2천만엔(US\$162,000)에 이를 것이라 한다. 개정법은 또한 수출통제 위반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최대 형량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개정법은 현재 형사상 벌칙이나 행정 제재, 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신청을 원활하게 촉진하게 된다.[7]

경산성은 2008년도 의회 회기 중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9] 만일 통과될 경우, 1987년도 일본의 주요 기업이 수출통제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의회가 대응한 이후,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이 최초로 개정되는 것이다. [편집자 주 : 1982년, 도시바社는 다수의 컴퓨터 제어식 공작기계를 소련으로 불법 판매하였으며, 이 기계는 소련이 잠수함 프로펠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 수출은 일본법에 위반하는 것이었다. 도시바의 행위에 대한 뉴스는 1987년 일반대중에 공개되었다.]

편집자 주 : Mitutoyo社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이전 Observer紙 기사 참조 : “Mitutoyo社 관리자 對이란 핵장비 수출 혐의로 기소,” 2006년 10월/11월호, pp. 3-4 및 “불법 이전이 계속해서 발각됨에 따라 이에 대해 일본은 면밀히 통제중,” 2006년 3월호, pp. 9-10,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에서 이용가능. 또한 다음을 참조 : Peter Crail, “수출통제 평가 : 확산 사례에 대한 연구로서의 Mitutoyo社,” WMD Insights, 2006년 10월, <[http://www.wmdinsights.com/I9/I9\\_EA1\\_EvadingExport.htm](http://www.wmdinsights.com/I9/I9_EA1_EvadingExport.htm)>.

Sources: [1] “Prosecutors Demand Prison Terms for 4 ex-Mitutoyo Employees over Illegal Exports,” Associated Press, May 25, 2007;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www.lexis-nexis.com](http://www.lexis-nexis.com)>. [2] Jun Hongo, “Mitutoyo Execs Receive Suspended Terms,” Japan Times, June 26, 2007. <<http://www.japantimes.co.jp>>. [3] “Mitutoyo: Motofukukaicho ni Choeki 4 nen wo Kyukei, Tokyo Chisai Kohan” (Four year Prison Term Demanded for Former Mitutoyo Executive, at the Tokyo District Court Hearing), Mainichi Shimbun, May 25, 2007. [4] “Mitutoyo Fusei Yushutsu, Moto Fukukaicho ni Choeki 4 nen Kyukei, Tokyo Chisai” (Mitutoyo Illegal Export: 4 year Prison Term Demanded for former Mitutoyo Executive at Tokyo district Court), Asahi Shimbun, May 25, 2007. [5] “Jail Sought in Mitutoyo Nuclear Export Scandal,” Yomiuri Shimbun, May 26, 2007. [6] “Gaikoku Kawase Gaikoku Bouekihou ni Motozuku Gyouseishobun ni tsuite,” (Administrative Sanction [Export Ban] under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website, June 26, 2007, <[http://www.meti.go.jp/press/20070626002/070626\\_press\\_g.pdf](http://www.meti.go.jp/press/20070626002/070626_press_g.pdf)>. [7] “Sangyo Kozo Shingikai Boueki Keizai Kyouryoku Bunkakai Anzenhoshou Boueki Kanri Shouinikai Seido Kaisei Working Group no Secchi ni Tsuit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Revision Working Group within the Subcommittee on Security Export Control Policy,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METI website, <<http://www.meti.go.jp/press/20060421005/seidokaisei%20wg-set.pdf>>. [8] “Sangyo Kozo Shingikai Boueki Keizai Kyouryoku Bunkakai Anzenhoshou Boueki Kanri Shouinikai Seido Kaisei Working Group, Dai 10 kai Giji Youshi” (The System Revision Working Group within the Subcommittee on Security Export Control Policy,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the 10th Meeting summary),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2>>.

95/ index.html>. [9] “Stiffer Penalty Eyed for Illegal Exports,” Asahi Shimbun, June 15, 2007, <<http://www.asahi.com>>.

## 일본, 유엔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이란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제재

2007년 5월 18일, 일본 내각은 유엔안보리결의 1747(UNSCR 1747)에서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것으로 명시된 15명의 이란인과 13개의 이란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을 발표하였다. 안보리는 2007년 3월에 결의 1747을 채택하였다. 동 발표는 일본 정부가 2007년 2월 12명의 이란인과 10개의 이란 단체에 대해 금융 제재를 부과한 움직임에 이어서 나온 것이다. 2월의 제재는 유엔안보리결의 1737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는 2006년 12월 채택되었다.[1,2,3] 2월과 3월의 조치에 따라, 열거된 27명의 개인과 23개의 단체와 자본 거래를 하거나 또는 지분을 할 경우에는 특수허가시스템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한 금융조치 외에도, 지난 5월의 발표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이란의 무기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경계 및 제한을 가할 것을” 요구하였다.[2]

일본 내각의 5월 발표에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을 제외한, 이란의 핵개발 활동에 관련된 물품의 판매 금지와 이란에 신규 원조 및 대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포함된다.[1] 그 발표가 있는 지 일주일 후, 2007년 5월 24일, 일본 외무상 Taro Aso는 이란의 Manouchehr Mottaki와 직접적으로 핵문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so는 Mottaki에게 이란이 유엔안보리결의 1747의 요구사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언급하였다. Aso는, 이란이 결의에 응하여 우라늄 농축을 중지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 말고는 이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언급하였다.[4]

일본은 유엔안보리결의 1737 및 1747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몇몇 국가들 중 하나였다. 결의 1737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위원회에 따르면, EU를 비롯한 62개 국가가 동 결의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자국내 노력을 진전시킨 것으로 보고하였다.[5] 이란과 일본의 높은 교역량 - 특히 일본에의 원유 수출 - 때문에, 유엔 결의의 엄격한 이행은 일본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그러나, 일본 총리 Yasuhisa Shiozaki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 및 중동의 안보와, 현재 상황이 비확산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란 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 따른 것이었음을 밝혔다.[1]

일본의 제재 대상 단체 리스트는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의 명단을 포함하고 있는 결의 1737 및 1747의 부록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졌다. 안보리결의 1737에서 최초로 지명된 단체들은 국제 금융제재에 직면하였으며,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자들의 자국내 입국에 대해 “엄격한 경계를 취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 문구는 개인들에 대한 여행 금지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었다.[6] 안보리결의 1747에서는, 제재 대상자의 수가 증가되었으며,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여행 제한이 강화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그러한 개인들이 입국 등 이동시 “경계” 및 “제한”을 가할 것으로 되어 있다.[7,8]

편집자의 주 : 유엔안보리결의 1737호는 이란이 2006년 7월 채택된 종전의 결의 1696호에서 요구된 핵심 핵프로그램의 중지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써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것이다. 유엔안보리결의 1737은 이란 정부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핵활동, 특히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생산, 중수관련 프로젝트들을 중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안보리결의 1737은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중수관련 활동, 핵무기 운반시스템 등에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추가적으로 명하고 있다. 유엔안보리결의 1747은, 이란이 안보리결의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IAEA의 2007년 2월 보고서 이후에, 안보리결의 1737로부터 3개월 뒤에 채택되었다. 안보리결의 1737 및 1747 제재 대상 단체 리스트는 결의 1737(2006)에 준하여 설립된 ‘유엔안보리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5,6]

<<http://www.un.org/sc/committees/1737/desindv.shtml>>

Sources: [1] “Kyodo: Japan OKs Stronger Trade Sanctions on Iran Amid Nuke Stalemate,” Kyodo World Service, May 18, 2007; in OSC Document JPP20070518969021. [2] “Measures Based on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to Freeze the Assets of Persons and Entities Engaged in Iran’s Proliferation Sensitive Nuclear and Other Activities and to Prohibit the Import of Arms from Iran,”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May 18, 2007, <[http://www.mofa.go.jp/announce/announce/2007/5/1173496\\_826.html](http://www.mofa.go.jp/announce/announce/2007/5/1173496_826.html)>. [3] “Measures Based on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to Prevent the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and to Prohibit the Import of Items related to Iran’s Proliferation Sensitive Nuclear Activities an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website, February 16, 2007, <<http://www.mofa.go.jp/announce/announce/2007/2/0216-2.html>>. [4] “Japan Pushes Iran on Nuclear Row,” Agence France Presse, via SpaceWars.com, May 25, 2007, <<http://www.spacewar.com>>. [5]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37 (2006),” United Nations website, <<http://www.un.org/sc/committees/1737/index.shtml>>. [6] “Security Council Imposes Sanctions on Iran for Failure to Halt Uranium Enrichment,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1737 (2006),”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ecember 23, 2006, <<http://www.un.org/News/Press/docs/2006/sc8928.doc.htm>>. [7] “Resolution 1747 (2007)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5647th Meeting on 24 March 2007,” UNSC Document S/RES/1747 (2007), March 24, 2007,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6/681/42/PDF/N0668142.pdf>>. [8] Paul Kerr, “Security Council Broadens Iran Sanctions,” Arms Control Today, April 2007, <<http://www.armscontrol.org>>.

## 국제 동향

### 파키스탄 항구, 미국 화물검색구상에 참여 결정

2007년 4월 30일, 파키스탄 Qasim 항은 미국의 화물 안전 구상(Secure Freight Initiative)에 해당하는 두 번째 항이 되었다. 이 구상(Initiative)은 미국 국토안보부, 국무부, 에너지의 방사능 검사 및 X-Ray 검사기의 설치를 통한 핵 또는 방사능 물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컨테이너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에 의해 미국 목표관리센터(National Targeting Center)는 남부에 항구도시인 카라치근처에 있는 Qasim항에 설치된 화물검색장비로부터 자료를 송부받기 시작했다.[1,2,3,4].

편집자의 주 : 화물안전구상(Secure Freight Initiative)과 컨테이너안전구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Customs and Border Patrol (CBP)에 의해서 집행(administered)된다. CBP 직원이 버지니아에 있는 Targeting Center에서 있는 동안, 현재 직원이 화물을 검색하는 점에서 화물안전구상은 PSI와 다르다. CBP직원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컨테이너를 직접 검색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CSI하에서는 미국 요원이 국제적 항구에 상주한다. CBP 검사관은 현지에 없으며, 화물안전구상은 CSI에 비해 충분한 인력, 공간, 인프라 등을 현지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5,6] 화물안전구상은 비파괴영상검사(non-intrusive imaging)를 활용해 검사를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2,3] 그러나 자동차를 연료를 실은 대형용기, 거대한 팔레트에 고정된 물품과 같은 대형화물은 검색되지 못한다. [7,8] 또한 스캐너는 냉동식품을 투과하지 못하며, [8] 화물안전구상이 목적으로 하는 대개 20에서 40 foot 크기의 화물고정물품(receptacle)은 대개 전자 가정용품, 장난감, 섬유, 식품, 가구를 실고 있으며 핵과 방사능 물질의 밀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7]

파키스탄 수상 Shaukat Aziz는 CBP의 현장업무(Field Operations)를 위한 부감독관(Assistant Commissioner)인 Jayson P. Ahern와 다른 부처사람들과 함께 Secure Freight Initiative 시작을 축하했다.[2] 첫 번째 컨테이너는 성공적으로 검색되었으며, 이렇게 Qasim항을 통해 100%의 미국행 컨테이너가 체크될 준비가 되었다. [1,3,4] 의심스런 컨테이너 중 방사능 및 X-ray 장비의 통과하기에 너무 큰 것은 미국으로 운송되기 전 실제 육안검사를 수행할 것이다.[7] 만약 Phase I 테스트가 성공적이라면, 국토안보부는 다른 항구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며 이는 미국행 컨테이너의 30%까지 검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8]

전세계에서 6개의 항구가 첫 번째 Secure Freight Initiative로 선정됐다. 온두라스의 Puerto Cortes가 2007년4월2일 첫 번째로 운영되었다.[1,2] Qasim 뿐만 아니라, 다른 Phase I 항구로서 영국의 Southampton, 싱가포르의 Brani Terminal, 한국의 부산항과 오만의 Salalah항이 포함되었다.[1,2,4] Phase I은 2007년 10월 13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입법 1년후에 구상이 발효된 것이다.[2] 첫 번째 phase가 끝난 후 Secure Freight Initiative는 첫째 8백만 컨테이너를 검색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의 7%에 해당하는 것이다.[7]

Qasim항은 항구의 규모, 물동량, 장소, 비확산 관련 전략적 중요성, 파키스탄의 참여의지를 고려해 선정되었다.[3] 파키스탄은 미국 전문가에 의해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에 의해 핵 또는 방사능 기기를 취득할 만한 통로(conduit)로 인용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 담당자들은 양국간의 신뢰성향상수단(CBM) 및 핵 및 방사능 물질의 비확산을 위한 주요 노력으로 Secure Freight Initiative를 평가했다.[2,3]

Secure Freight Initiative에 대한 실행의지로서 파키스탄은 Qasim항구내 5에이커의 부지를 국내 업무를 위해 지정하였고 미화 3.5백만 달러어치를 프로젝트에 썼다.[5] 검색 및 X-ray 장비 등 미화 5.5백만 달러어치의 물품이 미국 국토안보부와 에너지로부터 제공되었다.[5] [편집자의 주: 6천만달러의 예산이 Secure Freight Initiative를 위해 미화 6천만달러가 미의회에 의해 예산으로 잡혔고 기초단계가(initial phase) 순조롭게 진행되면 프로그램은 확대될 것이다.][7]

Sources: [1] "U.S. Begins Scanning for Radiation in Pakistan," Pacific, Shipper, May 11, 2007;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Secure Freight Initiative to Scan Ships for Radiation Begins Transmission from Pakistan,"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Documents and Publications, May 2, 2007;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Radiation Scanning at Port Qasim," Dawn, May 8, 2007, <www.dawn.com>. [4] "U.S. Begins Box Radiation Scanning in Pakistan," Journal of Commerce online, May 4, 2007;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5] R.G. Edmonson, "Secure Freight?: Customs is Confident it Will Meet Pilot Program Deadline; Congress Has its Doubts," Journal of Commerce, May 7, 2007, p. 17;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6] R.G. Edmonson, "X-ray Vision: Three Foreign Ports Will Scan U.S.-bound Containers under Customs' Secure Freight Initiative," Journal of Commerce, December 1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7] Meredith Cohn, "Early Checks Set on Cargo to U.S.; Homeland Security to Screen Containers Before They Sail From Six Foreign Ports," Baltimore Sun, December 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8] Eric Lipton, "U.S. to Expand Cargo Scans to Detect Nuclear Material," New York Times, December 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 컨퍼런스 와 워크숍

### 비슈케크와 알마티에서 개최된 수출통제부문 업계-정부 관계 포럼

이 기사는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개발및통상부 수출통제 및 허가 부문 수장 Taalaibek Bektashev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미대사관의 수출통제 및 국경보안(EXBS) 지원 프로그램 관리자 Gulnara Abildaeva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2007년 5월 17-18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수출통제분야의 업계-정부 관계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키르기스스탄 경제개발및통상부와 미 상무부는 미 수출통제 및 국경보안(EXBS)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받아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수출 통제 기관과 국방, 광업, 화학, 공작기계설비, 협회, 통관업, 물품운송업, 복합운송업, NGO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80여명의 키르기스스탄 참가자들이 포럼에 참석하였다. Dastan社, 비슈케크공작기계설비社, 키르기스화학야금설비社, Kara-Balta금속광업연합社 등이 키르기스스탄 업계 측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외국 참가자로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포럼은 업계 대표들에게 키르기스스탄의 수출통제법과 수출입 허가 절차, 국가통제리스트에 따른 품목 식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외국 전문가들은 수출통제에서의 업계의 역할, 특히 내부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업계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 참가자들은 국가가 명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시스템의 모든 단계-국내 법의 개발에서부터 규정 이행, 행정절차와 집행까지 -의 효과적 효율적 기능을 위해 업계가 참여하고 적극적인 협조해야 함을 인정하였다.

2007년 6월 7-8일, 카자흐스탄의 산업통상부와 미국의 상무부는 EXBS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이와 유사한 포럼을 편성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관료 및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카자흐스탄 산업계와 국가기관 대표자들이 90명 이상 이 포럼에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카자흐스탄 전략물자수출통제법 및 규정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업계-정부 파트너십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 참석 카자흐스탄 정부기관으로는 국가수출통제위원회, 산업통상부 산하 산업및과학기술개발위원회의 수출통제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관세통제위원회 등이 있었다.

포럼의 의제는 카자흐스탄의 국가 수출통제 시스템과 법, 규정, 허가 등 이에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 포럼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부문과 기업계에 비확산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 포럼은 산업계에 수출통제법 이행과 허가 신청, 카자흐스탄 통제 리스트를 사용한 품목 식별과 캐치올 규정 이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업계 대표자들이 수출통제 프로세스에서의 업계의 역할에 대한 견해 및 수출 주문 처리에서 ICP를 사용하는데 대한 견해를 표명한 가운데, 포럼 참석자들은 업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미정부, 타지키스탄의 긴급대응과 국경통제 개선을 지원

2007년 5월 11일, WMD 관련 사건에 대한 긴급대응에 관한 3주 과정의 훈련 코스를 종료하는 수료 행사가 타지키스탄 Dushanbe에서 열렸다. 이 코스는 타지키스탄 주재 미 대사관이 기획했으며, 미국 강사들이 강의하고, 긴급상황과 민방위에 관한 위원회와 외무부 관리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훈련코스 동안, 참석자들은 위험물질의 취급에 관한 절차 등 기초적 긴급대응 기술을 훈련 받았다.[1,2] 이 훈련이 긴급상황과 민방위에 관한 위원회가 국가 최초의 전문 대응팀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 미국 대사관의 지역안보실은 반테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팀에 15만 달러가 넘는 보호복, 마스크와 필터, 부츠와 장갑, 그리고 기타 탐지 방지를 제공했다. 이 지원 패키지에는 긴급상황에 대응할

위원회의 능력을 신장시킬 모바일 트레이너도 포함될 것이다. 이제까지 실시된 WMD에 관련한 미국 정부의 타지키스탄 긴급대응당국에 대한 지원으로는 2005년에 실시된 WMD 인식 세미나와 WMD 대량 사상자 긴급 의료 조정 코스 등이 있다.[1,2]

2007년 6월 29일 타지키스탄에서는 WMD 사건에 대한 긴급대응에 관한 또 다른 2주 교육이 끝났다. 버지니아 국가경비대에서 파견된 미국 강사들은 긴급상황을 위한 위원회와 국방부에서 온 직원들과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훈련이 끝날 때, 미국 대사관의 수출통제와 국경안보 부서의 화학, 핵 및 방사능 대응 프로그램은 현재 구성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첫 대응 팀에 6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제공될 새로운 장비들에는 탐지 미터, 자기완비적 호흡 기구, 에어 콤프레셔, 툴킷 및 기타 탐지장비는 물론이고, 맵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노트북 컴퓨터도 포함될 것이다. 2006년 12월, 동일한 미국 프로그램은 긴급상황과 민방위에 관한 위원회의 화학, 생물학 및 방사능 실험실에 특별 검사장비를 제공했다.[3]

2007년 3월,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실의 인디안 정찰 관리들로 구성된 엘리트 팀인 그림자 늑대들은 그들의 새로운 추적 기술을 타지키스탄 국경 관리국, 세관, 마약통제국 및 외무부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타지키스탄에서 일주일간의 훈련코스를 가졌다. 이 훈련은 타지키스탄이 마약 밀매 및 WMD와 관련 물자의 잠재적 이전 등과 같은 위협에 대하여 국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훈련코스는 수출통제 및 관련 국경보안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 방위위협 감소청의 재정 후원을 받았다. [4] [편집자의 주 : 그림자 늑대들은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금지품목 (주로 마리화나)을 운반하는 마약 밀매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 1972년에 설립되었다. 이 팀은 남부 아리조나 주에 위치한 Tohono O'odham의 인디안 부족 지역을 순찰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디안 추적을 담당하는 세관의 유일한 팀이다.][5]

타지키스탄에서 국경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13일, 타지키스탄 미국 대사인 Tracey Ann Jacobson와 Sharaf Fayzulloyev 소장(국가안보를 위한 위원회 산하의 국경경비 부대의 주요 이사회회의 제일 수장)은 아프카니스탄 접경의 Shurabad 지역에 새롭게 단장한 타지키스탄 국경수비 전초기지 2개를 열었다.[6] [편집자의 주 : 2006년 11월 30일, 타지키스탄의 국경보호에 관한 위원회가 국경경비 부대의 주 이사회로 국가 안보를 위한 위원회

아래에 설립되었다.][7] 미국 국무부의 국제 마약과 법집행국은 마약과 범죄에 관한 UN 사무소를 통해 64만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물리적인 빌딩수리에 더불어, UAZ 두 대와 GAZ 한 대 등 세 대의 트럭, 두 개의 국경수비 전초기지 시설을 위한 새로운 가구 등이 지원되었다. 2007년 말까지, 인프라, 장비, 훈련 등 미국 정부가 타지키스탄의 국경안보 프로그램에 지원할 금액은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6]

Sources: [1] "U.S. Government Emergency Situations Training Graduation," May 11, 2007, U.S Embassy in Tajikistan press release, <[http://dushanbe.usembassy.gov/pr\\_05112007.html](http://dushanbe.usembassy.gov/pr_05112007.html)>. [2] Payrav Nazarov, "Trening po chrezvychaynym situatsiyam" (A training on emergency situations), Khovar News Agency, May 14, 2007, <<http://www.khovar.tj>>. [3] "U.S. Embassy Supports Training for Emergency Situations, June 29, 2007," U.S Embassy in Tajikistan press release, June 29, 2007, <[http://dushanbe.usembassy.gov/pr\\_06292007a.html](http://dushanbe.usembassy.gov/pr_06292007a.html)>. [4] "Shadow Wolves Train Tajik Border Guards," March 13, 2007, U.S. Embassy in Dushanbe, Tajikistan press release, <[http://dushanbe.usembassy.gov/pr\\_03132007.html](http://dushanbe.usembassy.gov/pr_03132007.html)>. [5] Shadow Wolves website, <<http://www.shadowwolves.org/AboutShadowWolves.php>>. [6] "U.S. Government Continues Support for Tajik Border Security," June 13, 2007, U.S Embassy in Tajikistan press release, <[http://dushanbe.usembassy.gov/pr\\_06132007.html](http://dushanbe.usembassy.gov/pr_06132007.html)>. [7] Anvarbek Siddikov, "Stanovleniye pogranychnykh voysk Tadzhikistana" (The formation of Tajikistan's border guard troops), Khovar News Agency, May 22, 2007, in Press-uz.info, <<http://www.press-uz.info/ru>>.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http://cns.miis.edu/pubs/observer>)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WMD export control issues. It is published monthly for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community by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Although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check sources and verify facts, CNS cannot guarantee that accounts reported in the open literature are complete and accurate. Therefore, CNS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errors or omissions. Statements of fact and opinion expressed in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alone and do not imply the endorsement of the editors,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r the U.S. Government. Copyright 2006 by MIIS. May be freely reproduced and distributed with proper citation.

**Editor-in-Chief**

Sonia Ben Ouaghrham

**Associate Editors-in-Chief**

Dauren Aben  
Stephanie Lieggi

**Senior Consultants**

Daniel Pinkston  
Leonard S. Spector

**Co-Editor**

Alexander Melikishvili

**Associate Editors**

Tanat Kozhmanov  
Jing-dong Yuan

**Contributors**

Lindsie Brown  
Dave Kim  
Leah Kuchinsky  
Stephanie Lieggi  
Ingrid Lombardo  
Erik Quam  
Kazutaka Sakurai

**Reviewers**

Markus Binder  
Richard Cupitt  
Jean du Preez  
Dennis Gormley  
Elina Kirichenko  
Carlton Thorne  
Lars Van Dassen  
Raymond Zilinskas

**Copy Editors**

Maria Haug  
Katya Shutova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1111 Nineteenth Street, NW, 12<sup>th</sup> Floor  
Washington, D.C. 20036 USA  
Tel: (202) 464-6000; Fax: (202) 238-9603  
email: [intexcon@miis.edu](mailto:intexcon@miis.edu)